

# “광주발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용광로 역할 하겠다”

##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광주정신” 아래에서 원팀(one team)이 돼 광주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용광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었던 분열을 봉합하고,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방분권의 시대는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가길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다”고 진단한 뒤 “일자리,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1자리 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승리 소감과 경선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돼 주신 광주 시민과 당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선거기간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겠다.

**- 그동안 함께 경쟁했던 강기정, 민형배, 양항자, 윤장현, 이병훈, 최영호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던 제 삶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려는 각종 비방과 모함에 대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경선과정에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지역이 분열됐다. 통합의 해법은?**  
경쟁자들을 비롯해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으로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통합하는 것이 가장 어렵겠다. 경쟁했던 여섯 분은 모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함께 가겠다. 광주발전에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모두 광주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용광로의 역할을 하겠다.

**-경쟁 예비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 시장이 된다면 참고하거나 추진할 만 것도 있는지?**

## 경선 과정 갈라진 시민 통합 주력

## 경쟁했던 후보들 좋은 정책 반영

## 일자리 넘쳐나는 광주 만들겠다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정책들은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

양항자 후보의 자동차 전장사업과 5·18 타워 건설 공약, 그리고 강기정 후보의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구상 등은 구체적인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취지가 방향성이 좋다.

**-치열한 경쟁과 폐널티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지를 얻었다 원동력은?**  
시민들이 네거티브보다 검증된 후보 준비된 후보를 선택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광주가 재도약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광주발전 위한 저의 정책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믿음이었고 본다.

**-저는 그동안 각종 비방과 모함에 대응하지 않고 일자리,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1자리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을 하나씩 발표해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시대,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  
지방분권의 시대는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가길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졌던 지역발전의 로드맵을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광주시장은 광주발전 정책과 로드맵을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정책 전문성과 행정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광주로 가져와야 할 막중한 자리가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잘 해낼 수 없다.

**-저의 다양한 국경 및 의경경험과 인적네트워크가 광주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광주시의 현안은?  
개발제한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 공항이전, 한전 공대 설립 문제 등이 있지만 큰 틀에서 새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광주의 고용률(15-64세)은 2017년 기준 63.8%로 전국평균(66.6%) 더욱 낮은 수준이고, 1인당 소득(GRDP, '16년 기준 2239만원)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3192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자리는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사람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8000명이 넘는 인구 순 유출이 있었고 이중 66%가 20대와 30대다. 지난 3월 7일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의 하나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뉴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연결해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국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본선 전략과 각오는**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거티브 선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인물경쟁으로 본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만 광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이용섭이 걸어온 길

### 전남대 재학중 행사 합격

### 민주정부 시절 요직 두루 거쳐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시장에 3차례 도전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됐다. 이 후보는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난 1970년 전남대에 입학, 2학년 때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해 4학년 때 합격했다. 전남대에서 재학 중 고시 합격은 처음이었다. 이 후보는 재선의 국회의원, 국제시장, 행사부장관, 청와대 혁신수석, 건교부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서 호남 출신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참여정부에서의 요직과 경륜을 바탕으로 2008년 4월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하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재선에 성공한 뒤 2013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김한길 대표에 패배한 뒤 2014년 다시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영입 케이스로 복당해 총선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비상대책위원, 선거대책위원, 총선정책공약단장 등을 맡았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장과 경제특보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직을 맡았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파전

### 박, 우위속 김·안 역전 노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우위 속에 김문수·안철수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현 시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결선 없이 후보에 오를 만큼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대세론’을 입증하겠다는 포부다. 역대 서울시장 중 3선 도전에 나선 것은 그가 처음이다.

박 시장 캠프는 아직 본 후보 등록일(5월 24일~25일)까지 한 달 남게 남은 만큼 당장 선거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직위를 유지하며 당분간 시정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등 시정과 관련해 여전히 산적해 시장 공백을 가급적 줄이는 동시에 현역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서울시장 선거의 타깃을 문재인 정부로 잡았다.

박원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정국 이슈에 의해 표심이 좌우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보수 진영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박 시장과의 1:1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시민들이 김 후보가 아닌 자신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박 시장과의 1:1 대결구도로 굳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최대 변수는 김 후보와의 아권 단일화 성사 여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의 독주 체제가 형성돼 있어 선거 중·후반에 접어들면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안철수 두 후보의 아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66.26%의 득표율을 얻어 경쟁자인 박영선 의원(19.59%), 우상호 의원(14.14%)을 압도했다. 박 시장은 경선에서 과반(50%)을 넘는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남경필 맞대결

### 이, 민주 경선 59% 획득 후보 확정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 확정됐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59.96%를 기록해 2위를 차지한 전해철 의원(36.8%)을 크게 따돌렸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3.25%로 3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으로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전 의원을 크게 따돌리며 대세론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현 지사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해 전국구로 자리매김한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공천권을 따내며 국회의원 5선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남 지사와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년공 출신의 노동 인권변호사로 자수성가한 이 전 시장과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지만, 개혁소장파 이미지를 굳힌 남 지사가 상반된 이력으로 빅매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 이 전 시장 측은 관심이 일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

영제, 광역서울도 등과 관련한 경기도정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민주당 경선 결과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경선승리를 축하한다.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멋지게 겨루어 보자”며 일전을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일찌감치 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남 지사는 어린이날 연휴(5월 5~7일)를 전후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청년 일자리 대책 등 도정에서 성과를 냈던 정책과 수도권규제 혁신과 관련한 공약으로 이 전 시장에 맞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아직 이렇다 할 경기지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이 지역 정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 지사는 한국당 복당 전 ‘여야 1대 1’ 선거구도를 위한 아권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정의당에서는 이홍우 일선지역위원장, 민중당에서는 홍성규 화성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뛰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 2019. 7. 12. ~ 7. 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 2019. 8. 5. ~ 8. 18. (14일간)

장소 : 광주광역시, 여수시 | 참가 : 200여개국 15,000여명  
종목 :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Official FINA Partner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OMEGA, SAMSUNG  
Institutional Partners: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한수영연맹 KOREA SWIMMING FEDERATION